

출장자	소속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성명 및 직위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조혜승 부연구위원 김신아 연구원 이지현 위촉연구원
출장기간	2017. 10. 9.(월) ~ 2017. 10. 14.(토)		출장지	네팔 카트만두 및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산쿠, 산카라풀, 박카풀)
출장목적	<input type="checkbox"/> 네팔 현지의 소녀 및 여성 관련 우수사업 사례 조사를 통한 한국 BLG 구상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시사점 모색 <input type="checkbox"/> 네팔 중앙정부부처 여성전문가 정책대화 개최 (“2017 Nepal-Korea Policy Dialogue with Women Leaders”)를 통한 한국 정부의 BLG 정책 확산, 한국-네팔 여성 및 소녀 관련 정책현안 공유 및 향후 협력방안 모색 <input type="checkbox"/> 네팔 주요 협력기관(국제기구, 국내외 NGO 등) 전문가 면담을 통해 네팔 소녀 현황 파악, 모범 사업 사례 발굴,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협력방안 모색 <input type="checkbox"/> 네팔 현지의 소녀 및 여성 관련 현황 조사를 통한 향후 네팔과의 협력의 타당성 및 신규 사업 적정성 검토			
경비부담	약 1,300만원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방문 기관명		협력기관/참석자		회의내용
2017 KWDI-Nepal 여성전문가 정책대화 및 오찬 주최 (10. 11.(수), 10:00-14:00)		○ 네팔 여성아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Women, Children and Social Welfare) ·Radhika Aryal 차관 ○ 네팔 연방 및 지역개발부(Ministry of Federal Affairs and Local Development) ·Lila Adhikari Ojha 부차관 ○ 네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Susil Babu Khanal 부차관 ·Dewaka Dhakal 전문관 외, 총 4인		<input type="checkbox"/> 본원 연구성과 공유 <input type="checkbox"/> 네팔 현지 소녀관련 각 부처의 정책 공유 <input type="checkbox"/> 향후 성평등 원조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논의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하 코이카) 네팔 사무소 (10. 11.(수), 15:30-17:00)		·김형규 소장		<input type="checkbox"/> 본원 연구성과 공유 <input type="checkbox"/> 네팔 소재의 코이카 사업을 통한 현지 여성/소녀의 현황파악 <input type="checkbox"/> 향후 협력방안 논의
대지진 피해지역 방문	1	산쿠 (10. 12.(목), 10:30-12:00)	·(BBC 현지 NGO) Shanta Laxmi Shrestha 사무총장, Kopila Kanday 프로그램전문관, ·(지역 여성단체) Madam Kumari 회장, Ramalevi Shrestha 회계, Shilshilu Bulrachgu, Uteeta Shrestha Kabita Putuar, Kalpana Putuwur, Sabina Shrestha, Parbati Mandhar 비서 외, 총 10명	<input type="checkbox"/> 2015년 네팔 대지진 이후 여성/소녀의 현황파악 <input type="checkbox"/> 지역 여성 단체의 활동소개 <input type="checkbox"/> 향후 협력방안 논의
	2	산카라풀 (10.12.(목), 12:30-14:00)	·(BBC 현지 NGO) Shanta Laxmi Shrestha 사무총장, Kopila Kanday 프로그램전문관, ·(Sankharapur 지방청) Shabarna Shrestha 시장, Karmasil Mahila Samaj 부시장 외, 총 15명	<input type="checkbox"/> 2015년 네팔 대지진 이후 여성/소녀의 현황파악 <input type="checkbox"/> 지역 여성 단체의 활동소개 <input type="checkbox"/> 향후 협력방안 논의
	3	박카풀 (10. 12.(목), 14:30-16:30)	·(BBC 현지 NGO) Shanta Laxmi Shrestha 사무총장, Kopila Kanday 프로그램전문관, ·Newar 지역사회 구성원 다수 외, 총 30명	<input type="checkbox"/> 2015년 네팔 대지진 이후 여성/소녀의 현황파악 <input type="checkbox"/> 현지 여성 단체의 활동소개

연구 조사 팀  1	1	UNICEF 네팔 사무소 (10.10. (화), 10:00-11:00)	·Pragya Shahhff Karki 청소년 개발참여 프로그 램 전문가 ·백예지 보건 전문가	<input type="checkbox"/> 향후 협력방안 논의 <input type="checkbox"/> 본원 연구 성과 공유 <input type="checkbox"/> 네팔 소재의 국제기구 사업을 통한 현지 여성/소녀의 현황파악 <input type="checkbox"/> UNICEF의 여성/소녀관련 사업소개 <input type="checkbox"/> 향후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논의
	2	BBC 센터 (10.10. (화), 13:00-15:00)	·Shanta Laxmi Shrestha 사무총장 ·Anjana Shakya 창립자 ·Sushila Shrultha 부사무총장 ·Kopila Kanday 프로그램전문관 ·Seema Khan 이사 ·Sita Whimise 이사 ·Jagjit Kour 이사 ·Parvati Sunam 비서 외, 총 12명	<input type="checkbox"/> 본원 연구 성과 공유 <input type="checkbox"/> 네팔 현지 여성/소녀의 현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BBC의 여성/소녀관련 사업소개 <input type="checkbox"/> 향후 여성관련 사업 협력방안 논의
	3	NFCC 센터 (10.13. (금), 09:00-10:30)	·Pema Lhaki 사무총장 ·Preeti Mittal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input type="checkbox"/> 본원 연구 성과 공유 <input type="checkbox"/> 네팔 현지 여성/소녀의 현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NFCC의 여성/소녀관련 사업소개 <input type="checkbox"/> 향후 여성관련 사업 협력방안 논의
	4	UNFPA 네팔 사무소 (10.13. (금), 11:00-12:00)	·Kristine Blokhuis 부대표 ·Tirtha Man Tamang 통계전문관 ·Sudhad Pant 젠더전문관 ·김민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input type="checkbox"/> 본원 연구 성과 공유 <input type="checkbox"/> 네팔 소재의 국제기구 사업을 통한 현지 여성의 현황파악 <input type="checkbox"/> UNFPA의 여성/소녀관련 사업소개 <input type="checkbox"/> 관련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연구 조사 팀  2	1	UNESCO 네팔 사무소 (10.10. (화), 10:00-11:00)	·Balam Timalaina 교육전문관 ·Nora Wegner 교육컨설턴트	<input type="checkbox"/> 본원 연구 성과 공유 <input type="checkbox"/> 네팔 현지 여성/소녀들의 현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UNESCO의 여성/소녀관련 사업소개 <input type="checkbox"/> 향후 여성관련 사업 협력방안 논의
	2	ADB 네팔 사무소 (10.10. (화), 13:00-15:00)	·Suman Subba 선임전문관	<input type="checkbox"/> 본원 연구 성과 공유 <input type="checkbox"/> 네팔 소재의 국제기구 사업을 통한 현지 여성의 현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ADB의 여성/소녀관련 사업소개 <input type="checkbox"/> 향후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논의
	3	Save the Children 네팔 사무소 (10.13. (금), 09:00-10:30)	·Delailah Borja 소장 ·Bandana Fisak 부소장	<input type="checkbox"/> 본원 연구 성과 공유 <input type="checkbox"/> 네팔 소재의 국제 NGO 사업을 통한 현지 여성/소녀의 현황파악 <input type="checkbox"/> 향후 협력방안 논의
	4	Plan International 네팔 사무소 (10.13. (금), 11:00-12:00)	·Shiba Satyal 젠더전문관 ·Madhywanati Tjladhar 프로그램전문관	<input type="checkbox"/> 본원 연구 성과 공유 <input type="checkbox"/> 네팔 소재의 국제 NGO 사업을 통한 현지 여성/소녀의 현황파악 <input type="checkbox"/> 향후 협력방안 논의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VII)  
: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지원

# 출장 복명서

현지 모범사례 발굴 및 신규국가 적정성 사전조사를 위한  
네팔 출장 보고서(2017. 10. 9. ~ 10. 14.)

2017. 10. 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제개발협력센터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VII):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지원  
현지 모범사례 발굴 및 신규국가 적정성 사전조사를 위한  
네팔 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 배경

- 기획조정본부 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11년도부터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인 「아태 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 2017년에는 한국정부의 ODA 4대 구상 중의 하나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이하 BLG)’을 위한 정책기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BLG 구상의 3대 중점 영역인 소녀들의 교육, 보건, 미래역량 정책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보다 심도 있게 아시아 지역 중점협력국과 연구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네팔은 BLG 구상의 아시아 지역 거점 국가 중 하나이며, 이번 네팔 방문을 통해 1) 소녀 및 여성 관련 우수사업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BLG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2) 향후 본원의 신규 협력국가로서 네팔의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 또한 네팔 여성 및 소녀관련 정부부처의 실무급 공무원과의 정책대화 개최를 통해 1) 한국 정부의 BLG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2) 본원의 아태지역에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여성 및 소녀 관련 연구 성과를 확산하며 3)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본원과 네팔의 향후 여성 및 소녀관련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
- 특히 이번 출장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수원국의 수도권 편중 ODA 사업 수행에 대한 개선안으로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과 농촌 지역을 방문하고자 함. 해당 지역 방문을 통해 지방차원의 여성 및 소녀 관련 현황 및 정책을 파악하고 향후 협력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

2 출장 목적

- 네팔 현지의 소녀 및 여성 관련 우수사업 사례 조사를 통한 한국 BLG 구상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시사점 모색

- 네팔 중앙정부부처 국장급의 여성전문가 정책 간담회 개최 (2017 Nepal-Korea Policy Dialogue with Women Leaders)를 통한 한국 정부의 BLG 정책 확산, 한국-네팔 여성 및 소녀관련 정책현안 공유 및 향후 협력방안 모색
- 네팔 주요 협력기관(국제기구, 국내외 NGO 등) 전문가 면담을 통해 네팔 소녀 현황 파악, 모범 사업 사례 발굴,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협력방안 모색
- 네팔 현지의 소녀 및 여성 관련 현황 조사를 통한 향후 네팔과의 협력의 타당성 및 신규 사업 적정성 검토

### 3 출장 개요

- 출장지: 네팔 카트만두(Kathumandu),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농촌) 지역 :  
1)산쿠(Sankhu), 2)산카라풀 (Sankharapur), 3) 박카풀(Bhaktapur)
- 출장자: 총 4인 (본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조혜승 부연구위원, 김신아 연구원, 이지현 위촉연구원

<출장자 역할 분담표>

	이름	역할
1	장은하 (연구조사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WDI-Nepal 여성전문가 정책대화 총괄 및 주제 발표</li> <li>- 카트만두 정부부처 방문 및 네트워크 구축 총괄</li> <li>- 네팔 대지진 피해(농촌) 지역 방문 총괄</li> </ul>
2	조혜승 (연구조사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WDI-Nepal 여성전문가 정책대화 진행</li> <li>- 카트만두 여성관련 기관방문 및 모범사업 조사 진행</li> <li>- 네팔 대지진 피해(농촌) 지역 방문 진행</li> </ul>
3	김신아 (연구조사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WDI-Nepal 여성전문가 정책대화 진행 지원</li> <li>- 카트만두 정부부처 방문 및 네트워크 구축 진행</li> <li>- 네팔 대지진 피해(농촌) 지역 방문 진행</li> </ul>
4	이지현 (연구조사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WDI-Nepal 여성전문가 정책대화 진행 지원</li> <li>- 카트만두 여성관련 기관방문 및 모범사업 조사 지원</li> <li>- 네팔 대지진 피해(농촌) 지역 방문 진행</li> </ul>

- 출장기간: 2017. 10. 9.(월) - 10. 14.(토) [4박 6일]

일자	세부내용	장소
10/9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 출국: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진(총 4인) (KE 695, 인천 14:05 -&gt; 카트만두 17:50)</li> </ul>	인천->카트만두
10/10 (화)	<b>(연구조사팀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ICEF 네팔 사무소 방문 및 전문가 면담</li> <li>• The Beyond Beijing Committee(BBC, 현지 여성 NGO) 방문 및 전문가 면담</li> </ul>	카트만두

	<b>(연구조사팀 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ESCO 네팔 사무소 방문 및 전문가 면담</li> <li>• ADB 네팔 사무소 방문 및 전문가 면담</li> </ul>	
10/11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팔 중앙정부부처의 실무급 여성전문가 정책 대화 개최 (2017 Nepal-Korea Policy Dialogue with Women Leaders) (참석기관: 여성아동·사회복지부, 연방 및 지역개발부, 교육부 등)</li> <l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네팔 사무소 방문 및 전문가 면담</li> </ul>	카트만두
10/12 (목)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농촌) 지역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쿠, 산카라풀, 바카풀 등 3개 지역 방문</li> <li>• Misa-pasa Phalcha Pucha Women의 여성친화공간 방문</li> <li>• 지방 정부부처 여성아동·사회복지부 방문 및 전문가 면담</li> </ul>	(당일방문)산쿠, 산카라풀, 바카풀
10/13 (금)	<b>(연구조사팀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CC 네팔 현지 NGO 방문 및 전문가 면담</li> <li>• UNFPA 네팔 사무소 방문 및 전문가 면담</li> </ul> <b>(연구조사팀 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ve the Children 네팔 사무소 방문 및 전문가 면담</li> <li>• Plan International 네팔 사무소 방문 및 전문가 면담</li> </ul>	카트만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 귀국 (KE 696, 카트만두 20:30 -&gt;서울 05:55)</li> </ul>	카트만두->인천
10/14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착 (KE 696, 서울 05:55)</li> </ul>	인천

\*출장 계획서의 기존 일정이 현지 부처 및 국제기구의 사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같이 변동되었음.

## 2017 Nepal-KWDI 여성전문가 정책대화

□ 일시 및 장소: 2017. 10. 10(화), 10:00 ~ 14:00(오찬 포함)/ 카트만두 래디슨 호텔  
(Radisson Hotel Kathmandu)

###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총 4인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조혜승 부연구위원, 김신아 연구원, 이지현 위촉연구원

○ 네팔 참가자: 총 4인

순서	성명	직위	소속기관
1	Radhika Aryal	차관 (Joint Secretary)	여성아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Women, Children and Social Welfare)
2	Lila Adhikari Ojha	부차관 (Under Secretary)	연방 및 지역개발부(Ministry of Federal Affairs and Local Development)
3	Susil Babu Khanal	부차관 (Under Secretary)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4	Dewaka Dhakal	전문관 (Section Officer)	

### □ 세부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 ~ 10:30	상호 소개 및 인사 KWDI소개: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단체사진 촬영
10:30 ~ 12:00	사회: 조혜승 부연구위원 <b>발표1: Overview of Situation on Girls and Women in Nepal(15 min)</b> - Radhika Aryal 차관, 여성아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Women, Children and Social Welfare) <b>발표2: Gender Governance in Nepal(15 min)</b> - Lila Adhikari Ojha 부차관, 연방 및 지역개발부(Ministry of Federal Affairs and Local Development) <b>발표3: Current Policies and Development Needs on Education of Girls and Women in Nepal(15 min)</b> - Susil Babu Khanal 부차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b>토론자: Dewaka Dhakal 전문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b>  • 라운드테이블 토론 및 질의응답
12:00 ~ 13:30	오찬

## □ 주요내용

### ○ 발표내용 정리

#### - 본원 및 ODA 사업 소개 (장은하 센터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본 발표를 통해 본원의 역사, 조직도, 각 부서의 주요 사업 및 역량을 소개함.
-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올해로 7차 년도를 맞이하였고, 금년도 주제는 「소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국 정책 기반 지원」으로서 4개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공동연구, 초청연수(이하 SSAGE)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체계화 사업과 젠더와 ODA 포럼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임.
- 현지 모범사례 발굴 및 신규국가 적정성 사전조사를 이행하고자, 우리나라 개발협력 4대 구상 중 하나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이하 BLG)에서 거점 국가로 포함된 네팔을 방문하게 되었음.

#### - 발표 1: Overview of Situation on Girls and Women in Nepal (Radhika Aryal 차관, 여성아동·사회복지부)

- 여성아동·사회복지부의 Radhika Aryal 차관은 본 발표를 통해 네팔의 소녀와 여성의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발표하였음. 여성의 경제, 정치 분야의 참여정도, 남아선호현황, 젠더기반폭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네팔 소녀 및 여성의 역량강화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함.

#### - 발표 2: Gender Governance in Nepal(Lila Adhikari Ojha 부차관, 연방 및 지역개발부)

- 연방·지역개발부의 Lila Adhikari Ojha 부차관은 네팔의 젠더 거버넌스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발표함. 네팔은 헌법, 법률, 정책의 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음.

#### - 발표 3. Current Policies and Development Needs on Education of Girls and Women in Nepal(Susil Babu Khanal 부차관, 교육부)

- 교육부의 Susil Babu Khanal 부차관은 본 발표를 통해 네팔 교육시스템과 교육현황에 대하여 설명함. 네팔은 기초교육의 취학을 측면에서 성평등을 이룩하였으나, 기초교육의 졸업률과 중·고등교육의 접근성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 네팔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과 영양교육, 여아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과 지연사회 개발의 연계, 공교육의 효율성 제고, 여교사의 역량강화,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교육 등을 강조함.

### ○ 토론 및 질의응답

#### - Radjola Aryal 여성아동·사회복지부 차관

- 네팔은 남아선호 사상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한 곳으로 여성과 여아의 상황이 열악하며 높은 조혼율을 나타내고 있음.
- 네팔 여성들은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는 지역단위(district)로 갈수록 더 열악해지는 경향이 있음. 네팔 국가 차원에서도 여성문제는 선결되어야 하고, 따라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 Lila Adhikari Ojha 연방 및 지역개발부 부차관

- 네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약 51.5% 정도이며, 네팔의 헌법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우호적이며 여성 포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 Susil Babu Khanal 교육부 부차관

- 네팔 내 공교육 등 여아의 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농촌 및 산골지역과 소수민족의 여아에게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
  - 아직도 많은 여아는 공립학교에, 남아는 사립학교에 진학하며,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국가시험을 통과하는 성비의 차이는 매우 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
- **Dewaka Dhakal 교육부 전문관**
- 또한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인간개발에 대한 니즈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음. 일단, 네팔 농촌 지역의 여아의 롤모델이 부족한 실정이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함으로서 일 가정 양립에 직면하는 것 역시 문제로 생각됨.
- **본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이번 포럼을 통해 네팔 내 젠더에 대한 협력 니즈를 확인하게 되었음.
  - 향후 네팔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공식요청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해 네팔 현지 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바임.

\* 세부적인 발표 내용은 첨부한 회의발표자료 참고



<2017 Nepal-KWDI 여성전문가 정책대화 진행 사진-1>



<2017 Nepal-KWDI 여성전문가 정책대화 진행 사진-2>

### III

## 네팔 대지진 피해(농촌) 지역 방문

- 방문지역 1: 카마실 마힐라 사마이(Karmashil Mahila Samaj) 지역 여성단체
- 일시 및 장소: 2017. 10. 12.(목), 10:30-12:00, 산쿠(Sankhu)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조혜승 부연구위원, 김신아 연구원, 이지현 위촉 연구원
  - 네팔 참가자: (BBC 현지 NGO) Shanta Laxmi Shrestha 사무총장, Kopila Kanday 프로그램 전문관, (지역 여성단체) Madam Kumari 회장, Ramalevi Shrestha 회계, Shilshilu Bulrachrgu, Uteeta Shrestha Kabita Putuar, Kalpana Putuwur, Sabina Shrestha, Parbati Mandhar 비서, 총 10명
- 회의내용
  - 본원 및 ODA 사업 소개 (장은하 센터장)
  - 카마실 마힐라 사마이(Karmashil Mahila Samaj) 지역 부녀회 소개 (Madam Kumari 회장)
    - 네와르(Newar) 지역의 자생적 여성 공동체로 총 9명의 멤버로 구성됨.
    - 2015년 네팔 지진 후, 폐허가 된 네와르(Newar) 지역을 재건 및 회복,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설립되었음.
    - 초기에는 지역 공동체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현재는 법적 등록을 마친 공식 단체임.
    - ‘여성 평등과 연합(Women’s Equality & Unity)’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의 의사결정권(decision making)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함.
  - 카마실 마힐라 사마이(Karmashil Mahila Samaj) 지역 부녀회의 소녀관련 사업 (Madam Kumari)
    - Beyond Beijing Committee(BBC), UNICEF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지진 후 재난 구조 및 재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
  - 구호 활동: 상담 및 보건의료 자료 배포
  - 재해복구 활동: 직업 훈련, 각종 소득 창출활동 및 기술 교육



<नेपाल Karmashil Mahila Samaj (지역 부녀회) 사진>

□ 방문지역 2: 산카라풀(Sankharapur) 지방청

□ 일시 및 장소: 2017. 10. 12.(목), 12:30-14:00, 산카라풀(Sankharapur)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조혜승 부연구위원, 김신아 연구원, 이지현 위촉 연구원

□ 네팔 참가자: (BBC 현지 여성 NGO) Shanta Laxmi Shrestha 사무총장, Kopila Kanday 프로그램전문관, (Sankharapur 지방청) Shabarna Shrestha 시장, Karmasil Mahila Samaj 부시장 외 총 15명

□ 회의내용

- 본원 및 ODA 사업 소개 (장은하 센터장)
- 산카라풀 지방청 (Karmasil Mahila Samaj 부시장)
  - 2015년 지진 이후 카마실 마힐라 사마이(Karmashil Mahila Samaj) 부녀회가 설립되었으며 BBC와 함께 일해 왔음. 지진 발생 이후 BBC의 도움으로 지진이후 복구 사업을 위해 결성되었음.
  - 부시장은 카마실(Karmasil)의 회장이었는데, 이후 네팔이 연방제로 이행하면서 지역차원의 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게 된 것을 기회로 부시장에 선출되었음. 부시장의 경우 부녀회장을 하면서 지방내의 수많은 여성을 만나왔고, 그 이후 선거를 통해 부시장에 선출되었음. 따라서 부시장에 선출된 것은 카마실(Karmasil) 부녀회의 축적된 활동의 성과임.
  - 지진이후 여성친화공간을 설립하여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인, 청소년, 여성들에게 상담을 제공하였음. 상담을 통해 여러 연령대의 여성을 만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BBC의 구호활동과 여성들의 기술 개발(skill development)이 가능했음.
  - 청소년 관련 문제로, 첫째,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 조혼이 성행하고 있음. 둘째, 네팔에서는 현재 대학을 졸업해도(bachelor's degree)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젊은이들의 실업이 심각한 문제임. 또한 여학생들의 중퇴율은 매우 높으며, 남학생들의 경우 한시적 일자리(seasonal employment)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상태임.



<네팔 산카라폴 지방청 사진-I>



<네팔 산카라폴 지방청의 시장, 부시장 사진-II>

□ 방문지역 3: 미사-파사 팔차 푸차(Misa-pasa Falchha Pucha) 지역 여성친화센터

□ 일시 및 장소: 2017. 10. 12.(목), 14:30-16:30, 박카풀(Bhaktapur)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조혜승 부연구위원, 김신아 연구원, 이지현 위촉 연구원
- 네팔 참가자: (BBC 현지 NGO) Shanta Laxmi Shrestha 사무총장, Kopila Kanday 프로그램 전문관 및 Newar 지역사회 구성원, 총 30명

□ 회의내용

- 본원 및 ODA 사업 소개 (장은하 센터장)
- 여성친화센터 및 활동 소개
  - 네와르(Newar) 지역사회 자생 커뮤니티. 2015년 지진 후, 마을 재건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마을 구성원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음.
  - 마을 내의 사원에 정기적으로 모이며, 목요일마다 모여 종교행사를 행하기도 함.
  - 이 지역의 사람들은 지진으로 인해 대부분의 집, 시설이 붕괴되었음. 가족을 잃은 경우도 많음.
  - 지진 직후, 외부 지원기관의 도움으로 의료지원을 받음. 의사 진료를 포함하여 심리치료를 받음. 지진 후 두 달여 동안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음.
  - 재난회복 차원에서 소득증대기술 훈련을 받음.
  - 제작된 제품을 지역사회에 팔고, 이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음. 그러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훈련은 미흡한 실정임.
  - 한국의 소녀/여성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의함.



<네팔 네와르 지역사회의 여성친화센터 사진>

## 가. 연구조사팀 1

□ 기관방문 1: UNICEF 네팔 사무소

□ 일시 및 장소: 2017. 10. 10 (화), 10:00-11:3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신아 연구원

○ 네팔 참가자: Pragya Shahhff Karki 청소년 개발참여 프로그램 전문가, 백예지 보건전문가

□ 회의내용

○ 본원 소개 및 ODA 사업 설명 (장은하 센터장)

○ 네팔 여성 및 여아 현황 (Pragya Shahhff Karki 청소년 개발참여 프로그램 전문가)

- 네팔 여성의 문제는 구조적인 장벽, 가부장제가 가장 큰 원인임.

- 네팔에서 여아는 존중받지 못하고, 여아경시 및 차별을 경험함.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은 기뻐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으로 여김.

- 해로운 관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음.

○ 각 분야별 현황: 교육

- 교육 분야의 경우, 통계상으로는 성비불균형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옴. 그러나 중퇴율, 특히 15-19세 여아의 중퇴율이 높음.

- 특히 네팔 농촌에서는 현재 학교 다니는 소녀들이 교육을 받는 첫 세대인데, 소녀들의 엄마도 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임.

- UNICEF의 관련 프로젝트로는 인도와의 국경지역에서 운영되는 "Homework Clubs"라는 프로그램이 있음. 이 프로그램은 단지 소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동료지원(peer support), 멘토(mentor)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과 영어(소녀들이 가장 뒤처지는 과목)에서 잘했던 선배들이 도와주는 과외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활동도 포함됨.

○ 각 분야별 현황: 보건

- 보건 분야의 경우, 청소년들은 낮은 보건 서비스 이용률(진찰률)을 보임. 오히려 여성청소년의 진찰률이 높는데, 이것은 조혼과 조기임신의 영향으로 ANC(ante natal care) 산전진찰률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각 분야별 현황: 경제 활동 참여

- 경제활동의 경우, 가난할수록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높고, 부유할수록 낮음. 여성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규범이 강하며,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 결정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음.

○ 각 분야별 현황: 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 이하 GBV)

- GBV의 경우, 조혼과 차우파디(Chhaupadi)가 국토 중앙의 구릉지대(hilly area)와 서부 지역에서 아직도 유행하고 있음. 생리 중에는 움막에서 살아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으며, 면담자의 경우도 카트만두에 사는 중상층이지만 생리 중에는 집에서 지켜야 하는 제한들이 따름. 예를 들면 생리 중

- 에는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요리해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
- 또 하나의 문제는 남편들의 알콜 중독으로, 알콜 중독이 심하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함.
- 네팔에서 일하려면 젠더적 시각(gender lens)를 갖는 게 중요하며 모든 영역이 다 젠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UNICEF 프로그램 소개 및 본원과의 향후 협력 방안

- 보건: 청소년 보건 프로그램(adolescent health program)
  - 빈혈 치료를 위해 철분과 엽산을 제공하고 있음. 네팔에서는 남아 선호로 인한 영양불균형도 심한데, 특히 여아들은 생리할 때도 먹는 음식이 제한됨으로 인해(우유 금지 등), 영양결핍에 빠질 위험이 큼.
  - 보건 프로그램의 경우 FC Barcelona(축구팀), KOICA 등이 주요 공여기관임.
- 교육분야
  - USAID와 FC Barcelnoa의 Messi Foundation이 주요 공여기관임.
  - 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ING 은행과 독일 유니세프 위원회가 주요 공여기관임.
  -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하며, 그 외의 각종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두 검토해야 함.
- 조혼: Ending Global Child Marriage Initiative 프로그램
  - UNICEF 본부가 DFID, CANADA Aid(CIDA), Netherlands, Italy와 공동 참여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유니세프는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상담도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젠더 관점의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게 도움.



<UNICEF 네팔 사무소>

□ 기관방문 2: BBC 네팔 현지 여성 NGO

□ 일시 및 장소: 2017. 10. 10 (화), 13:00-15: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신아 연구원

○ 네팔 참가자: ·Shanta Laxmi Shrestha 사무총장, Anjana Shakya 창립자, Sushila Shrultha 부사무총장, Kopila Kanday 프로그램전문관, Seema Khan 이사, Sita Whimise 이사, Jagjit Kour 이사, Parvati Sunam 비서

□ 회의내용

○ 본원 및 ODA 사업 소개 (장은하 센터장)

○ BBC 소개 (Shanta Laxmi Shrestha 사무총장)

- Beijing Beyond Committe(이하 BBC)는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 4차 UN 세계여성회의 이후인 1998 년도에 설립된 네팔 현지 NGO로 여성의 인권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옹호와 네트워크 구축 등에 힘 쓰고 있음. 또한 농촌 지역과 소외 그룹/계층의 여성들을 아우르기 위해 국내외의 정치적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

- BBC는 네팔 현지 여성과 여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증진과 역량강화를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그들이 기본 권리를 누리고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국내외의 여성 및 여아 관련 단체, 기구, 협회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 여성 및 여아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리서치를 병행하고 있음.

- 현재는 네팔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이하 SDGs)의 목표 5번인 양성평등을 확립해나가기 위해 주력 하고 있음.

○ BBC 사업 설명

- 역량강화, 검토 및 모니터링, 애드보커시 및 정치활동, 네트워크와 협력 구축과 그리고 2030년까지 여성 정치 지도자 비율을 남녀 성비 50:50으로 촉진하는 캠페인 활동, 남아시아 내의 여성 성생식 보건 및 권리 향상, 네팔내의 낙태율 감소 프로젝트, SDG 2030의 일환으로 양성평등 주류화 프로젝트 진행 등이 있음.

- 특히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여성 재할 및 역량 강화 센터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여성 과 여아와 면담하고, 종잣돈을 지원하여 그들이 경제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BBC의 주요 전략으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애드보커시 활동, 역량 강화,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이 있음.



<BBC 네팔 현지 여성 NGO>

□ 기관방문 3: NFCC 네팔 현지 NGO

□ 일시 및 장소: 2017. 10. 13 (금), 09:00-10:3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신아 연구원
- 네팔 참가자: Pema Lhaki 사무총장, Preeti Mittal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회의내용

- 본원 및 ODA 사업 소개 (장은하 센터장)
- NFCC 소개(Pema Lhaki 사무총장)
  - NFCC는 1988년 네팔 정부의 재생산 보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 본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성생식 사업과 청소년의 성생식 보건으로 구성됨.
  - 4개의 중점 분야로 옹호(advocacy), 연구(research),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실행(implementation)이 있으며, 역량강화의 경우 네팔 정부 공인 보건 교육을 위탁받아 연간 2-3회 실시함.
  - 2017년부터는 모성보건과 재생산보건 등 젠더이슈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음. 예를 들면, 재생산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생리, 위생, 보건, 인권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 또한 UNICEF가 개발한 모듈을 이용해 젠더교육을 실시함.
  - NFCC는 ASHA(희망)라는 이름의 원스톱 여성폭력위기센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스톱 센터의 설립을 위해 "Fantastic Female" 캠페인 실시함.
- NFCC의 창의적인 접근 방법



<NFCC 네팔 현지 NGO>

□ 기관방문 4: 유엔인구기금(이하 UNFPA) 네팔 사무소

□ 일시 및 장소: 2017. 10. 13 (금), 11:00-12:3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신아 연구원

○ 네팔 참가자: Kristine Blokhuis 부대표, Tirtha Man Tamang 통계전문관, Sudhad Pant 젠더 전문관, 김민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회의내용

○ 본원 및 ODA 사업 소개 (장은하 센터장)

○ 네팔 현황(Kristine Blokhuis 부대표)

- 양성평등은 크로스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로서 유엔인구기금(이하 UNFPA)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요소임. 네팔 UNFPA는 양성평등 이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네팔 현지의 여성 및 여아의 현황을 정리, 분석, 노력을 하고 있음.
- 먼저 조혼은 네팔의 가장 심각한 여성 및 여아의 문제로서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그들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침해하고 있음.
- 두 번째, 여성에 대한 폭력(VAW)으로 네팔의 경우는 악습(harmful practise)을 꼽을 수 있고, ‘차우파디(Chhaupadi)’가 대표적임. 네팔의 차우파디는 고대부터 이어진 힌두 관습 중 하나로 생리혈이나 출산혈이 재앙과 불운을 몰고 온다는 미신에서 기인하여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하는 행위로서, 네팔의 많은 여성 및 여아가 차우파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사고를 겪었고, 이에 대하여 네팔 정부는 2017년 8월 차우파디에 대한 처벌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벌금을 정했음.
- 세 번째, 보건에의 접근으로 가족계획이 있으며 ‘아들선호사상’이라는 사회 및 문화적 특색에 기반함. 네팔의 보건적 특징으로는 청소년 여성들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조기 임신을 함. 이는 젠더에 기반한 성별 선택(이하 GBSS)와도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며, 모성사망(maternal mortality)과

모성 질병 이환율(maternal morbidity)와도 연결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네팔여성들은 경제적 기회와 정치적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 이는 네팔이 조혼으로서 전 세계 중 아홉 번째로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여아의 자퇴율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음.

-

○ UNFPA 사업 설명

- 유엔인구기금은 성생식보건(SRHR), 청소년(Youth and Adolescents), 양성평등, 인구의 역동성 네 가지 분야로 운영됨.
- 성생식 보건 분야에서는 네팔의 여성 및 여아가 성생식 보건 서비스와 성교육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였고, 보건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조산사 교육의 지원도 진행하고 있음.
- 인구의 역동성 네팔의 2011년 센서스(혹은 DHA (보건조사)) 분석 결과, 몇개 지역에서 성비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여성대상폭력(이하 VAW) 를 파악하기 위한 적합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VAW을 예방하는 연구도 없음. 따라서 젠더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과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정부공무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2021년 인구조사를 예정하고 있음.



<UNFPA 네팔 사무소>

## 나. 연구조사팀 2

□ 기관방문 1: UNESCO 네팔 사무소

□ 일시 및 장소: 2017. 10. 10 (화), 10:00-11: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조혜승 부연구위원, 이지현 위촉연구원

○ 네팔 참가자: Balaram Timalina 교육 전문관, Nora Wegner 교육 컨설턴트

□ 회의내용

○ 본원 소개 및 ODA 사업 설명 (조혜승 부연구위원)

○ 네팔 현황 (Balaram Timalina 교육 전문관)

- 네팔은 최근 2015년 9월에 신헌법이 제정됨. 이에 따라 정부의 구조도 새롭게 개편되었음.
- 정부구조는 연방정부, 주정부(Provincial governments),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나누어짐.
- 주정부는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 후반 중 의원들이 선출될 예정임
- 지방정부는 75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8월 시장, 부시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선출됨(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Nepalese\\_local\\_elections,\\_2017](https://en.wikipedia.org/wiki/Nepalese_local_elections,_2017))
- 네팔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50% 뿐이고, 123개 정도의 지방 언어가 사용됨.

○ 네팔 여성 및 여아 현황

- 네팔의 여아와 관련된 이슈 중 교육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함. 초등교육의 등록률 면에서는 여아와 남아가 평등한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여아들의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음. 그 이유는 학교가 여아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환경일 경우가 많기 때문. 특히 위생과 관련된 시설, 남녀 분리 화장실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아들이 생리를 시작하면서 학교를 이탈하게 됨.
- 학교 밖 여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소외된 문제로 남아 있음. 학교 밖 아동 중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많은 수를 차지함.
- 지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 후 여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여아의 경우 가족 내에서 물을 길거나 가정의 가사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남아보다 많음. 따라서 여아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가더라도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짐. 그리고 가정 내에서 조혼을 강요받기도 함.

○ UNESCO의 소녀 관련 사업

- 소녀 관련 사업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음: 1) KOICA 지원사업과 2) 말랄라 재단지원사업.
  - KOICA 지원의 소녀 사업
    - 사업명: Empowerment Adolescent Girls and Young Women through the Provision of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nd a Safe Learning Environment In Nepal
    - 2015년에 착수되었고, 2016년에 사업이 시작됨.
    - KOICA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50억 규모로 UNESCO가 사업의 책임을 담당하고, UNFPA와 UN Women이 함께 사업을 진행함.
    - 특히 UNFPA 는 직업훈련, UN Women은 보건, UNESCO는 교육을 각각 담당함.
    - 사업의 목적 4가지로는 1) 형식 교육의 접근성 향상, 2) 교육의 형평성 제고, 3) 비형식교육을 통한 학교 밖 여아의 교육권 보장, 4) 교육환경 개선
    - 5개의 문해율이 낮은 곳을 선정하여 지원(3개의 고산지역과 2개의 남부 평지 지역)
    -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참고가능

- 말랄라 재단 지원의 소녀사업
  - Malala's Fund for Girls' Education의 지원으로 진행
  - 사업명: Empowering Adolescent Girls and Women: Promoting equitable educ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 네팔 교육부 및 현지 NGO와 함께 진행
- 그 외
  - 여교사 지원으로 여학생들의 롤 모델이 부재함. 여성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여교사들의 롤 모델이 중요함.
  - 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UNESCO 네팔 사무소>

□ 기관방문 2: ADB 네팔 사무소

□ 일시 및 장소: 2017. 10. 10 (화), 13:00-15: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조혜승 부연구위원, 이지현 위촉연구원
- 네팔 참가자: Suman Subba 선임전문관

□ 회의내용

- 본원 및 ODA 사업 소개 (조혜승 부연구위원)
- 네팔 현황(Suman Subba 선임전문관)
  - 네팔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성을 띄고 있는 나라임. 다양한 인종,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
  - 2015년 신헌법 제정 후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철폐되었으나, 사회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음.
  - 그러나 신헌법은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을 중요한 이슈로 상정하고, 다양한 소외된 그룹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네팔 여성 및 여아 현황

- 초등교육의 취학을 면에서는 성평등이 거의 달성되었음. 그러나 여성의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아 소녀들의 졸업률은 매우 낮음. 이것은 소녀/청소년이 가정의 경제적 영역을 책임지거나 가사 일을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교에 보내지 않기 때문임. 즉,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소녀교육의 중요한 요소임.
- 보건 분야에서는 생리기간 중 격리되는 문화가 여전히 팽배함. 생리를 경험하는 소녀의 경우 불결하다고 인식되며, 이들은 동물의 우리 같은 좁은 곳에 격리되어 제한적인 음식을 섭취하게 되어, 영양 결핍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여성의 직업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성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soft sector에 위치해 있으며,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네팔은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실업률이 매우 높음.
-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함.

○ ADB의 소녀 관련 사업

- ADB는 소녀/여성을 특화한 사업은 없으나, 사업 내에 소녀/여성을 40% 포함하여 구성함.
- 예전에는 특정 그룹을 겨냥하는 사업을 지향하였으나, 최근에는 섹터 중심의 사업으로 변화함.
- ADB는 해당 국가 사무소와 본부가 협력하여 젠더실행계획을 제작함. 이는 정부의 국가발전과 연계하여 이 사업들을 성인지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작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음.
- ADB 네팔은 특히 소외된 집단을 위한 사업에 주목하고자 함.



<ADB 네팔 사무소>

□ 기관방문 3: Save the Children 네팔 사무소

□ 일시 및 장소: 2017. 10. 13 (금), 08:40-10: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조혜승 부연구위원, 이지현 위촉연구원
- 네팔 참가자: Delailah Borja 소장, Bandana Fisak 부소장

□ 회의내용

- 본원 및 ODA 사업 소개 (조혜승 부연구위원)
- 네팔 현황 (Bandana Fisak 소장)
  - 초등교육 입학 비율은 남녀 별 차이는 없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여학생은 공립학교에 남아 있고 남학생은 기숙·사립학교에 진학함. 네팔 공립학교 교육의 질은 매우 낮음.
  - 네팔 도시지역의 한 가정 당 평균 자녀수는 1, 2명이며 지방 지역은 2, 3명임.
  - 도시화로 인해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네팔은 인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인신매매가 쉽게 이뤄지고 있으며 인신매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쉬움.
  - 네팔 지역 정부는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 (VDC)와 같이 마을개발위원회를 선정하여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음. 지역 정부는 “아동친화지역 거버넌스(Child Friendly Local Governance)”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세이브더칠드런의 소녀 관련 사업
  - 세이브더칠드런 네팔 지부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긴급지원 외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육에 대한 지원임. 네팔 교육부의 도움으로 네팔 아이들의 삶 및 공립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크로스 커팅 이슈로 젠더, 재난위기관리(Disaster Risk Reduction, DRR) 등을 다루는 가장 큰 프로젝트로는 2가지 있음.
    - 재난 회복을 위한 지속적 행동 프로젝트 (Sustainable Action for Resilience and Food Security, SABAL)
    - 보건 프로젝트 (Global Fund)
  - 교육에는 NORAD: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가 있음.
    - 정규교육을 통해 슬럼가 지역의 여아들의 필요/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보건에는 My First Baby Guide (MFB) 가 있음.
    - 네팔의 조혼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 네팔 지부는 사춘기 소녀와 첫 부모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성·생식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왔음.
  - 통합에는 아동 클럽(Child Club)이 있음.
    -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으로 설립된 교내활동인 “Child Club”은 아이들의 리더십 훈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식 증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음.



<Save the Children 네팔 사무소>

□ 기관방문 4: Plan International 네팔 사무소

□ 일시 및 장소: 2017. 10. 13 (금), 11:00-12: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조혜승 부연구위원, 이지현 위촉연구원
- 네팔 참가자: Shiba Satyal 젠더 전문관, Madhywanati Tjladhar 프로그램전문관

□ 회의내용

- 본원 및 ODA 사업 소개 (조혜승 부연구위원)
- 네팔 현황(Shiba Satyal 젠더 전문관)
  - 여성 노동 시장 현황: 네팔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젊은 여성들은 해외로 나가 기 시작했음. 네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비전문직 분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남녀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 네팔 교육 커리큘럼은 아이들이 꿈과 장래희망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생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또한, 취업 시장이 제한적이어서 자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자영업 시장도 제한적이라 많은 문제가 있음.
  - 네팔 혼인 법: 네팔 혼인 법상, 법적 혼인연령은 20세이며 20세 미만이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은 법적 효력이 없음. 하지만 부부가 20살이 됐을 때는 혼인 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 유산: 딸은 결혼할 경우 남편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기 때문에 딸의 부모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줬음.
- Plan International의 소녀 관련 사업
  - Plan International 네팔 지부는 40여 년 동안 아동 특히 여아 및 양성평등에 대해 노력해왔음. 현재 집중 분야는 생계, 교육, 보건, 재난구조, 아동보호, 물 위생 등임. 또한, Plan International의 인권기반 접근인 아동 중심의 지역개발(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 이하 CCCD)은 아이들·가족·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 이러한 CCCD에도 성인지적 부

분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

- Girls Not Bride: 800여 개의 시민 단체들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Girls Not Bride는 조혼을 종식하고 소녀들이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Better Life Option Programme (BLOP): 9개월 프로그램인 BLOP는 정규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젠더, 아동보호, 직업훈련 등의 삶의 기술에 대해 배움.
- Child Clubs: 학교 내에 Child Club를 운영하여 아이들의 사는 지역 및 가정에 인식의 변화를 가져 오고 아동친화마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Plan International 네팔 사무소>

## 다. 연구조사팀 1, 2

□ 기관방문 1: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네팔 사무소

□ 일시 및 장소: 2017. 10. 11 (수), 15:30-17: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협력센터장, 조혜승 부연구위원, 김신아 연구원, 이지현 위촉연구원

○ 참가자: 김형규 코이카 소장

□ 회의내용

○ 본원 및 ODA 사업 소개 (조혜승 부연구위원)

○ 네팔 현황(김형규 소장)

- 네팔의 여성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함. 여성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으며 여성 인권은 보호되지 않고 있음. 특히 산악지역은 조혼, 인신매매, 아동노동 등의 문제가 만연하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빈곤과 연결되어 있음.
- 여학생의 비율이 지방 지역 학교에 더 높은 이유는 남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기 때문임.
- 네팔은 최근 정치적 개혁으로 인해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성 정치인이 사회·정치적 권리 및 힘을 발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또한, 정부는 국제기관·NGO의 활동에 협조적이지 않고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음. 따라서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함.

○ 코이카 네팔 사업

- 코이카 네팔은 “나와파라시 농촌개발통합사업(Integrated Rural Development in Nawarparasi)”을 진행 중이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행될 예정임.

○ ODA 사업 핵심

- ODA 사업의 핵심은 변화의 가능성 및 필요성이며 ODA가 투입되었을 때 실행 가능성 및 사업의 타당성임.
- ODA 사업을 실행할 때 첫 번째로 원인분석 및 조사 작업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 해결 가능성을 파악해야 함. 또한, 사업의 현실성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사업인지를 알아야 함. 결국 해결책과 연관된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수혜자의 니즈를 맞춰 현지 눈높이와 중심적인 사고로 ODA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함.
- ODA 사업은 기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조 수혜자가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고 스스로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함.



<코이카 네팔 사무소>

□ 자문회의1: 국제적십자사연맹(이하 IFRC) 네팔사무소 대표와의 면담

□ 일시 및 장소: 2017. 10. 12 (목), 18:30-20:00/ 네팔 카트만두 인근 식당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협력센터장, 조혜승 부연구위원, 김신아 연구원, 이지현 위촉연구원

○ 참가자: 김주자 대표

□ 회의내용

○ 본원 및 ODA 사업 소개 (조혜승 부연구위원)

○ 전체 개요 (김주자 대표)

- 국제적십자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이하 IFRC)는 1919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5개국 대표의 적십자사 연맹이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한 가장 큰 국제 인도주의 기구임.

- 이에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네팔 사무소로 파견되어 있는 김주자 대표와 네팔의 여성 및 여아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정부의 정치와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네팔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짐.

○ 네팔 현황 및 자문내용

- 먼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이하 BLG)'의 거점 국가 중 하나인 네팔을 본원의 잠재적 ODA 사업 국가로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판단함. 나라를 선정할 때에 아프리카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아시아권 지역에 집중하여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그리고 공급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요자의 역사와 문화권에 내재된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그들 스스로 주도권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점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또는 길잡이의 역할을 제공해야 함.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네팔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권,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착수하고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네팔의 경우 5-6년 전만해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나라였고, 그 횟수는 현저하게 감소하였음.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던 때에 여성과 여아의 삶은 비참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도 조혼, 자퇴율, 차우파디(Chhaupadi)와 같은 악습 등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박해를 당하고 있음. 그리고 네팔은 모든 행위와 물건에 '신'을 세워두는 문화를 가지고 있음. 그래서 매 순간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모든 행위를 경건하게 함. 이와 같이 네팔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종교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은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무작정 바꾸려고 시도해서는 안 됨.

- 커다란 배경과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팔 사람들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끔 교육을 제공하며 접근할 수 있음.